

	보도자료	
	12.23(수) 11:00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,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·코스닥시장본부,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		
책임자	[금융위원회] 선욱 과장	담당자	[금융위원회] 노소영 사무관 (02-2156-9914)
	[금융감독원] 오영석 실장		[금융감독원] 서규영 부국장·팀장 (02-3145-8450)
	[한국거래소] (유가) 김병률 본부장보 (코스닥) 서종남 본부장보		[한국거래소] (유가) 채현주 부장 (02-3774-8730) (코스닥) 김용상 부장 (02-3774-9800)
배포일	15.12.23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3매

제 목 : 기업공시 업무, 이렇게나 편리해집니다!
-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("K-CLIC") 출범 및 시연회 개최 -

1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출범

- 금일(12.23일) 한국거래소·금감원·상장협은 협업을 통해,
 - 기업의 공시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"K-CLIC"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시
- * K-CLIC : Korea-Checking, Linking, Integrating system for Corporate disclosure
- "K-CLIC"은 지난 5.19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「기업공시제도 현장 간담회」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

< 간담회(5.19) 중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 >

"(A회사 공시담당자) 공시담당자가 회사에 산재된 모든 공시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"

"(B회사 공시담당자) 공시관련 규정·서식 등이 빈번히 개정되어 실무자가 모든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공시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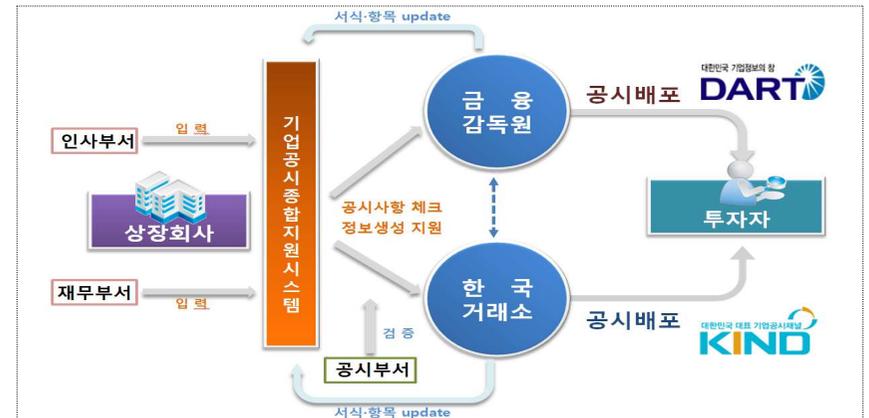
< "K-CLIC" 시스템을 통한 주요 개선사항 >

문 제	개 선
· 기업의 각종사건 발생시,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	(공시업무 통합검색) · 시스템이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, 공시기준 등을 자동으로 확인
· 공시항목·서식이 개정될 경우, 공시담당자가 개정된 내용을 개별 확인하고 작성	(최신서식 업데이트) · 개정된 서식이 시스템에 자동 update되어 최신 상태를 유지
· 공시담당자가 모든 공시자료를 직접 생성하여 DART·KIND 시스템에 별도 입력	(공시작성·제출 지원*) · 개별자료를 입력하면,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변환하여 DART·KIND에 전송

※ 정보 자동변환 및 DART·KIND 제출 기능은 '16년 상반기 Open 예정

- 동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공시자료 입력부터 자료생성·제출까지의 과정이 **One-stop** 지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

< "K-CLIC" 시스템을 통한 기업공시 작성절차 >



* ① 시스템을 통해 공시항목 여부 자동체크, ② 서식 등 변경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정보 유지, ③ 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 지원

2 시연회 개최

- 금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“K-CLIC” 시스템 시연회에는,
 -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과 유관기관 대표자들을 비롯한, 각 기업의 공시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동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표명

< 「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“K-CLIC” 시연회」 개요 >

■ 일시/ 장소 : 2015.12.23.(수) 11:00 ~ 12:00/ 한국거래소 21F 대회의실

■ 주요 참석자

- (금융위) 금융위 부위원장, 자본시장국장 (금감원) 부원장
- (거래소) 거래소 이사장, 경영지원본부장, 유가코스닥시장본부장
- (업계)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, 코스닥협회 부회장, 각 기업 공시담당자

-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“K-CLIC”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시업무 통합검색, 기업 기본정보 관리, 공시작성 등 일련의 공시업무를 체험
 - 정 부위원장은 “K-CLIC” 시스템을 통해 그간 복잡한 공시제도와 과도한 작성부담으로 애로를 겪었던 상장기업들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면서,
 - “K-CLIC” 시스템이 기업공시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인 감축과 투자정보의 적시성 있는 공시를 유도하는 자본시장 내 ‘혁신의 아이콘’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음
- 시연회에 참석한 기업 공시담당자들 역시,
 - 공시대상 여부, 제출기관, 공시시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“K-CLIC”의 손쉬운 검색기능을 강점으로 손꼽았음
 - 또한, 공시 관련 규정이나 서식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해 주므로, 미처 규정·서식 변경을 인지하지 못해 공시를 누락하는 문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망함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